

제7강

공동체의 위기와 나눔의 실천



수업 목표

- ❖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동체 의식의 약화가 우리 사회에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인식한다.
- ❖ '우리'의 연대의식을 회복하며, 나아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타인과 나누며 사는 삶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잠깐~! 생각 퍼즐 만들기

지구가 만약 100인의
마을이라면



잠깐~! 생각 퍼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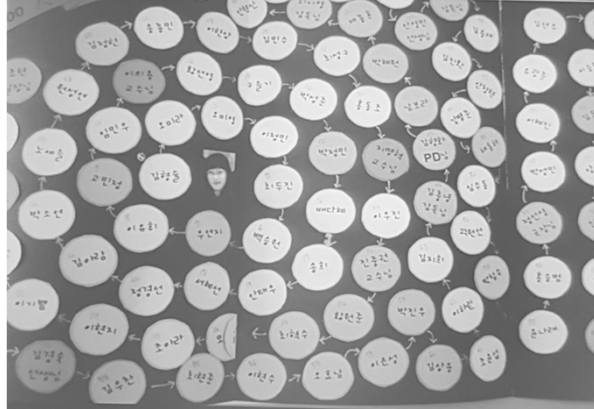
- ❖ '공동체'란?
- ❖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 공동체 의식이란 무엇일까?
- ❖ '지구촌 공동체'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잠깐~! 생각 퍼즐 만들기

❖ '사회적인 나의 존재'

- 나의 이웃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생각해 보기



공동체란

❖ **community = cum(함께, 서로) + munus(선물) 또는 munere(주다)**

❖ 영토적 개념 = 지역사회

"역사적으로는 근대사회 성립 이전, 토지의 사적 소유와 공동체에 의한 소유가 병존하는 상태에서의 토지의 공동소유 단체"

❖ 비영토적 & 기능적 개념

"일반적으로는 긴밀한 결합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영리 추구적 태도가 아니라 상호연대의 태도로 이루어진 기초적인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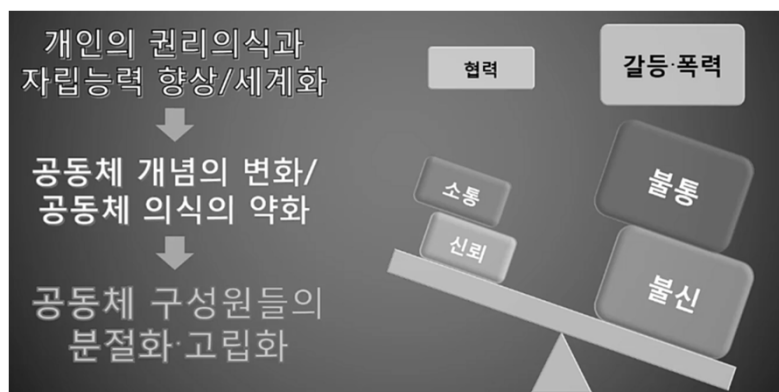
공동체 의식이란

❖ 공동체 의식

- 공동사회의 일원이라는 의식이나 감정
- 어떤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거나, 공동으로 관리 또는 이용하고 있다거나 하는 물질적 기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될 수 있음.
- 또는 어떤 대상과 일체감 또는 어떤 집단에 귀속하고 있다는 의식이나 감정에서 비롯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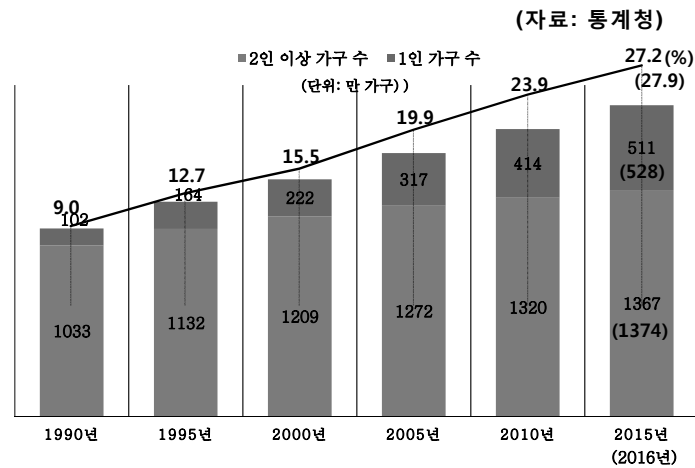
공동체의 위기





1인 가구 시대

❖ 우리나라 1인 가구 추이



독립인가 고립인가?

- ❖ 1인 가구 문화도 확산되면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고 있음.
- ❖ 그러나, 자발적인 1인 가구의 삶을 택했다고 해도 '독립'이 아닌 '고립'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 이에 소셜 팸(social family), 소셜 다이닝, 셰어하우스 등의 문화가 대안으로 등장하였음.



MBC <나 혼자 산다>



tvN <식사를 합시다>



잠깐~! 생각 퍼즐 만들기



1인 가구 시대와 고독사

❖ 무연고사

- 정확한 통계가 없는 '고독사'를 대신해 쓰이고 있는 개념
- 연고자가 없거나, 부패나 훼손 등으로 신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망 사례, 그리고 경제적 ·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 사례를 뜻함.
- 무연고 사망자수는 2012년 1,021명, 2013년 1,275명, 2014년 1,767명, 2015년 1,669명, 2016년 1,83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 (출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
- 일부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서 제외하는 등 분류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실제 고독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특히 2016년 50대가 23%에 이르는 등 중·장년 층이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나와 너를 '우리'로

- ❖ 현재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분절화, 고립화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은 '고독사'만이 아님.
- ❖ 공동체 의식의 약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폭력 등에 노출된 개인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음.
-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란 존재의 공동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의 메커니즘을 되살리는 것이 필요함.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 나눔

❖ 나눔이란?

-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시간, 돈, 재능, 마음, 힘 (노동력)을 주고 받는 것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인간의 복지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 (보건복지부)
- 기부(현금, 물품), 자원봉사(노동력), 생명나눔(혈액, 장기)으로 구분.
(보건복지부, 2015, '2014 나눔실태 조사')



나눔의 힘



테레사 효과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인체 면역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의 힘



나비 효과

내가 실천하는 작은 나눔의
행동이 지구촌 먼 곳에서 큰
변화를 이끄는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의 힘



부메랑 효과

내가 베푼 선행이 언젠가 내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한다.

(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블리스 오블리주

❖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 **"Much is given, much is required."** (J. F. 케네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고귀한(귀족의) 신분'이라는 뜻의 noblesse와 '책임이 있는'이라는 뜻의 obligé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일컫는 말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 멜린다 게이츠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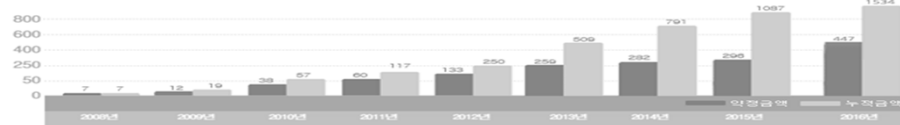
부부의 자산은 101조이며, 재산의 95%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말라리아나 에이즈 퇴치 사업, 제 3세계 아동과 보건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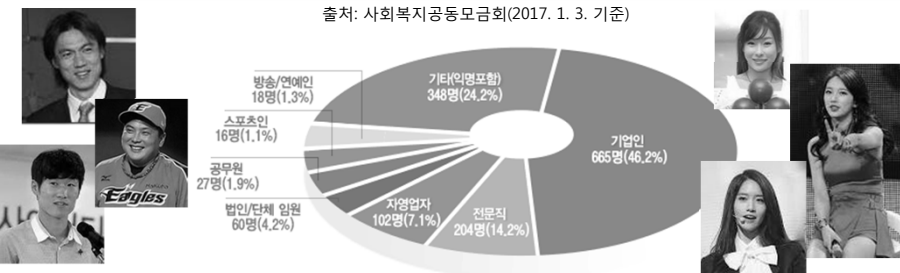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연도별 아너 소사이어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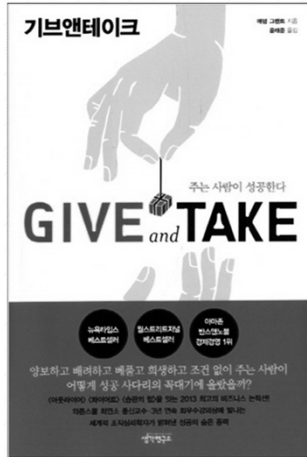


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7. 1. 3. 기준)





Giver vs Taker



저자

애덤 그랜트

와튼 스쿨 조직심리학 교수

주제에 대한 심층분석, 창의적이고 도발적인 연구 활동,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다각화된 시선에 힘입어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와튼 스쿨 최초로 최연소 종신교수에 임명되었다. 직무설계, 업무 동기과 성과, 내향성과 실적의 연관성에 관한 그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세롭고, 적용가능하며, 무엇보다 재미있다'고 정평이 나왔다.

그는 <기브애틀이크>를 통해 '타인을 위해 베풀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행위'가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이 책은 출간 전부터 <뉴욕타임즈>에 커버스토리로 다뤄지며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 후 <포브스><워싱턴포스트><하핑턴포스트><비즈니스위크><파이낸셜타임즈><하버드비즈니스리뷰> 등의 유력 언론에 소개되어 단숨에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아마존과 반스앤노블 베스트 셀러 목록에 올랐으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올랐다.



Giver vs Taker

❖ 호혜원칙의 차원으로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



Giver
이타적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
을 좋아하는 사람

베풀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대가는 바라지 않아요.
그저 타인의 변화를 돕고
영향을 주고 싶을 뿐이에요.
누가 내 도움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지에만 집중합니다.



Matcher
이해타산적

받는 만큼
되돌려 주는
사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는 만큼만
되돌려 주면 되죠.
만약 내가 상대에게 신세를 진 것은
그만큼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Taker
이기적

준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
을 원하는 사람

세상은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 먹히는 지열한
경쟁의 장이에요.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요?



Giver vs Taker

❖ giver vs. taker,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

- 벨기에 의대생 600명 대상 연구: 학점이 가장 낮은 학생들은 대개 'giver 지수'가 높았음. 그러나, 학점이 높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음. 전 과목에서 giver 성향 학생의 학점이 11% 더 높았음.
-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영업사원 대상 조사: giver 성향 사원의 판매실적이 taker나 matcher에 비해 2.5배 더 낮았음. 그러나, 최고의 영업사원들 역시 giver 성향으로, taker나 matcher보다 연간 50% 높은 실적을 올렸음.

『기브애테이크』 (애덤 그랜트 지음) 중에서



Giver vs Taker

❖ 실패한 giver vs. 성공한 giver

| | | 타인의 이익에 대한 관심 | |
|---------------|----|---------------|-----------|
| | | 낮음 | 높음 |
|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 | 낮음 | 무관심함 | 실패한 giver |
| | 높음 | 이기적 taker | 성공한 giver |

❖ 성공의 기준

- taker: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
- matcher: 개인적 성취와 타인의 성취 간 균형
- giver: 남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 성취



Giver vs Taker

❖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는 사람

호혜원칙과 성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직업군에서든 기버가 골짜기뿐만 아니라 최고가 될 가능성도 가장 큼. 기버가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를 점령하는 이유는 기버가 신뢰의 신용을 쌓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명성을 얻고 성공을 돕는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나눔은

위험을 동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성공한
기버

매처

테이커

실패한
기버

오늘 하루도 많이 사랑하세요~~~

